

## 파룬궁진상이 브라질 국가 각 부(部)위원회에 전해지다

[밍후이왕] 남미에 위치하고 있는 브라질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국가이다. 현재 브라질은 여름이어서 30°여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수도 브라질리아의 파룬궁수련생들은 2014년 2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 브라질 문화부, 건강위생부, 최고법원기구, 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등 부문의 청사에 찾아가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

대통령 관저 보안부 공무원과 군인들은 진상자료를 열심히 읽었고, 한 공무원은 박해를 반영한 사진을 가리키면서 “이건 어찌된 일이죠?”라고 물었다. 수련생이 “파룬궁은 ‘真善忍(쩐싼런)’을 신앙하고 중공은 ‘가짜, 악, 쟁투(假惡斗)’를 신봉한다. 그의 가치관과 위배되는 가치관에 두려움을 느낀 중공은 억만의 민중들이 마음을 닫고 선을 향하는(修心向善) 것이 두려워 박해를 발동하고, ‘분실자살’, ‘살인’, ‘정치를 한다.’ 등 거짓 말을 만들어 法輪功(파룬궁)에 먹칠했다. 파룬궁수련생들은 진상만 알릴뿐 영원히 정치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진상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 공무원은 똑똑히 알았다고 표시하면서 열정적으로 파룬궁수련생들을 위해 기념사진을 찍고 파룬궁수련생들의 일체가 모두 좋아질 것을 축원했다.

브라질 수도 사법부의 변호사와 법관들은 진상자료를 보고 나서 이 한차례 박해에 대해 충격을 느



2014년 2월에 브라질 최고법원기구앞에 전시된 파룬궁진상 현수막

끼면서 중공의 폭행을 이해할 수 없어했다. 과학기술개발부 입구의 한 보안책임자는 ‘신분을 신앙하는 것은 사람의 바른 행위로서 절대로 박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 그런 나쁜 짓을 한 죄인을 징벌하라고 기도하겠다.’고 표시했다. 일부공무원들은 어디에서 파룬궁을 배울 수 있는가를 자세히 물었다. 한 직원은 “‘真善忍(쩐싼런)’은 정말 좋습니다. 특히 ‘忍’은 사람들이 거의 잊어버리고 있는데 지금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으로 회귀하게 할 시기입니다. 오직 이래야만 이 세상에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파룬따파는 바로 리홍쯔(李洪志) 선생님께서 1992년 5월부터

전하기 시작한 불가(佛家) 상승(上乘) 수련 대법으로서 우주의 최고특성 ‘真善忍(쩐싼런)’을 근본지도로 한다. 억만 사람들의 수련을 통해 法輪大法(파룬따파)는 대법대도(大法大道)로써 진정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고층차(高層次)로 이끌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 안정에 대해, 사람들의 신체소질과 도덕수준 향상에도 헤아릴 수 없는 긍정적인 작용을 일으켰음을 증명했다. 파룬따파는 이미 100 여개 나라에 널리 전해졌고, 각 나라의 표창장, 지지의안과 지지서함을 3000 여 편을 받았다. 전 세계에서 중공은 유일하게 파룬궁을 박해하는 정권이다. ◇

**무엇때문에 “파룬따파하오! “쩐, 썬, 런하오!”를 성심으로 읽기만 하면 곧 바로 큰 복을 받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의 일념은 천지가 다 알고 있다(人心生一念, 天地盡皆知)”고 한다. 파룬따파가 모욕당하고 박해받을 때 당신이 시비를 똑똑히 가리고 선량한 것을 지지하는 이것이 바로 가장 진귀한 일념이므로 곧 바로 하늘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이는 절대 미신이 아니며 이것은 “선악에는 보응이 있다”는 천리(天理)의 체현이다. 전국각지에는 위험에 처하였을때 “파룬따파하오!”를 믿었기에 위험에서 벗어난 사례가 어디나 다 있다.

# 길림성 연변 화룡시 평메이(冯梅)가 납치되어 세뇌반에서 박해 받다(런재1)

[밍후이왕 2014 년 1 월 22 일]  
연변 화룡시 서성진 이도 9 대 촌민 평메이는 2012 년 7 월 22 일 시장에서 과일을 파는중 아동저수지 세뇌반으로 납치되어 각종 박해를 받았다.

평메이여사는 사실의 경과를 아래와 같이 진술했다.

2012 년 7 월 22 일, 그날은 바로 팔가자 장날이어서 나는 처음으로 내집에서 수확한 과일을 팔러 팔가자진 시장으로갔다. 아침 6 시가 좀 지나 서성진파출소 경찰 송샤오웨이(宋晓伟)와 최씨인 경찰이 경찰차를 몰고 나의 집에서부터 줄곧 시장까지 따라 왔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 집 온 가족은 다른 경제 래원이 없어 매년 과일을 팔아서 겨우 먹고 살수 있으며 하루라도 팔지 못하면 썩어버리니 반년 넘는 동안의 투자와 지불도 헛수고로 된다고 애타게 사정했으나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다.

대략 8~9 시가 되어 한대의 경찰차가 더 오더니 5~6 명 사람이 내렸는데 내가 본적 없는 사람들이었다. 송샤오웨이 말에 따르면 한 사람은 서성진 파출소 팡(方)소장이고, 한사람은 서성 종치판(综治办)서기 리웨만(李月满)이라 했다. 그들은 나의 과일차를 사정없이 한옆에 마구 밀어 놓고는 리웨만이가 큰 소리로 “파출소로 가자, 안건이 있어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일이 있으면 여기서 말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파출소로 가야하는가? 고 큰 소리로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나를 밀고 당기면서 경찰차에 밀어 넣고는 '홍문 아동저수지 경찰훈련기지'라는 간판이 걸린 곳으로 끌고갔다. 사실은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하여 박해하는 소굴이었다. 아동세뇌반에서 서성 종치판의 조씨인 직원이 나를 감시했는데 밥도 그가 가져



고문연시(演示) : 묶이고문

다 주고 씻고, 화장실로 갈 때에도 모두 따라 다녔다, 그 외 시간은 연길 사오자 오미화와 박영자가 강제로 나에게 대법과 사부님을 비방하는 비디오를 보게 했는데 보지 않으니 박영자가 책으로 나의 다리를 때렸다.

7 월 23 일 밤, 나는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여 종치판 조씨 직원에게 내가 너무 괴로운데 나의 가족에 알려 나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보일 수 있게 상급에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사실 그날 나의 남편이 왔었는데 그들은 만나지 못하게 했다.) 조금 후 화룡시 정법위서기와 세뇌반 정치부주임인 리춘즈(李春值)가 왔지만 나에게 대답을 주지 않았다.

7 월 24 일, 오미화, 박영자와 한 경찰이 들어오더니 "어지러우면 벽 옆에 가 서있어라"고 외쳤다. 또 화룡의 리야쥘안(李亚娟)이라고 자칭하는 사오자가 많은 CD 를 들고 들어오면서 "네가 죽어도 이 CD 와 마찬가지로 한 장의 기록이 더 많아질 뿐이다"라며 욕설을 퍼 부었다. 나는 좀 앉았다가 안 되겠기에 그만 누워버렸다, 그러자 오미화와 박영자는 나의 손에다 침을 찔렀는데 마음속까지 파고 들어가듯 아팠다. 그들이 얼마 후에야 포기하고 갔는지 모르겠다. 점심 때가 됐지

만 나는 너무 지쳐서 점심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저녁이 되자 조씨가 '개고기탕'을 가져다주어 나는 마셨다. 하지만 온밤 불안하고 초조함이 밀려와 발광할 것 같았는데 누우나 앉으나 괴롭기 그지없었다. 연길 사오자 송슈친(宋秀琴)은 "넌 자겠니? 안자겠니? 네가 자지 않으니 남까지 못 자게 하니?"라고 고래고래 외쳤다

7 월 25 일, 사오자 오미화는 아침 일찍 부터 들어와 큰 소리로 "너는 오늘 이 칸에서 못나간다. 대소변도 이 휴지통에다 보고, 세면도 못한다."라고 말했다. 나는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문과 창문이 단단히 닫혀 있어 어떻게 할까 생각했다. 점심에 또 창춘화전에서 온 소령(邵玲)과 오미화가 오더니 또 나의 팔에 침을 찔렀는데 마음속까지 파고들듯 극히 고통스러웠는데 이렇게 얼마나 긴 시간 찔렀는지 모르겠다. 오후 4~5 시쯤 오미화, 박영자, 리메이쥘안(李美娟), 소령 그리고 국보경찰과 '610'박주임이 오더니 나를 세뇌반 2 층으로 데리고 가 "네가 말을 안 들으면 장형(丈刑)을 한다"고 했다. 그들은 2~3 미터 되는 두개의 끈으로 각각 두 다리를 묶은 다음 두 다리는 쌍가부좌 한 자세로 하고 다음 발목에 묶은 끈으로 두 팔을 각기 묶어서 힘껏 위로 올려 뒤로 묶었는데 전신은 꼼짝 할 수도 없었다. 소령은 "네가 '오우, 오우'하는 신음 소리를 낼 때 남이 들을 까봐 2 층으로 옮겼다"고 했다. 이 형벌을 받은 적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그의 홍문이 탈출(脱肛)되어 2~3 촌이나 튀어나왔다고 했다. 얼마나 긴 시간이 지났는지 나의 온몸은 땀투성이로 되었는데 그때서야 그들은 나를 풀어 주었다.